

건강한 속사람 V.

인간은 욕망을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존재이다.

1. 무엇을 남게 할 것인가?

속사람의(마음) 연단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속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결국 바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안에 무엇이 담겨있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명확한 원리가 히브리서 11:1 에 기록되어 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다. 바람은 내면에 관한 것이며, 실상은 바깥에서 나타난 실체에 대한 정의이다. 마음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느냐에 따라 그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면의 속사람이 잘 정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육신의 열매가 맺혀있는 영역을 대체하여 생명력을 내고 있는 상태이다. 성경은 우리 마음안에 있는 '열매' 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한다.

[갈라디아서 5:19-21]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22-23]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의 구분은 명확하다. 삶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마음에 남겨져 있는 육신의 일에 대한 결과이다. 성령충만한 신앙이란, 육신의 일이 있던 곳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육신은 '욕망' 이라는 환경 안에서 활성화 된다. 욕망이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말한다. 욕망은 육신을 지배한다. 그래서 결국 행동하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기필코 해버리고 마는 마음이 욕망이다. 갈라디아서 5:17절은 성령과 육신의 속성에 대한 영적원리를 정의한다.

[갈라디아서 5:17]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행동' 에 관한 일이 아니다. 전적으로 '마음', '속사람' 에 관한 것이다. 육신의 욕망이 제어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영적인 '제어, 통제'에 대한 바른 정의 - 금욕주의가 아니다.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며 통제한다는 것에 대한 바른 정의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 자체를 제어하려고 노력한다. 이와같은 신앙은 '욕망을 금하는 금욕주의' 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성경에서 육신을 통제하며 다스린다는 것을 말할 때, 욕망자체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무엇을 얻기위한 마음, 성취를 통한 만족을 얻는 마음이 결코 나쁜 마음은 아니다. 무엇을 바라는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본능' 에 대한 영역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영역이다. 오히려 무엇을 바라고, 얻고자 하며,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잘못된 욕망이 있다. 이것에 대한 구분은 '의도성'에 있다. 무엇을 바라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의도'로 구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본능과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이것은 '잘못된 의도'를 말한다.

'의도'란 무엇인가?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행동을 말한다. 선악과의 예를 들어보면 명확하다. 열매를 먹고자 하는 본능은 나쁜 마음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아는데도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것'이 문제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움직이고야 마는 마음이 바로 '잘못된 의도'이다. 잘못된 의도가 원하는 마음과 만날 때 '욕망'이 된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욕망으로 정의하고 제어하는 금욕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금욕주의의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구하고, 갈망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제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구할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나 금욕주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능자체를 제어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어떤 것도 인간이 지워버릴 수 없다. 본능자체를 지워버릴 수 없는데, 행동과 노력으로 지워버릴 수 있도록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이다. 그래서 금욕주의는 본능을 제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

3. 마음의 경작은 '의도'를 다스리는 것이다.

성경에서 욕망을 다스리는 영적원리는 '본능을 제어하는 금욕주의'가 아니다. 본능을 움직이게 하는 '의도'를 다스리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이 더 중요하다. 선악과를 먹은 행동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에 대한 의도 파악이 더 중요한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의도가 명확하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수 있다'는 의도를 명확히 소개한다.

* 선악과를 먹은 의도

[창세기 3: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성경은 그들이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에 대한 의도(속마음)를 핑계할 수 없도록 보여준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도'에 대한 훈련이 되어있는 마음을 말한다. 영적으로 불편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복잡하다.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 항상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있다. 성령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 즉, 육의 생각을 따른다. 이런 사람의 말과 생각에는 항상 '의도'가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불편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들 수 있다.

[사도행전 5:3]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당한 이유는 분명하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명확히 말한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려 했다'라고 말한다. 아나니아가 헌금을 떼어먹은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을 속이려했던 아나니아의 잘못된 '의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의도'는 언제나 세력과 힘을 만든다.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초대교회 전체로 흘러 들어갔을 때,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큰 위기가 있었을 것이다. 베드로는 성령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도'를 간파했다. 그리고 그 의도가 세력과 힘을 얻지 못하도록 차단시켰다.

4. '본능' 이 아니라 '의도' 를 경작하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열매는 육신의 일을 제어함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법은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열매를 맺는 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요한복음 15:4-5]

4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는 가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들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가지 스스로 더러운 것들을 제어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포도나무에 잘 접붙혀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가지가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본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의도가 잘못된 것이다.

1) 본능과 욕망을 통제하려 하지 말라. 그 시간에 생명의 근원되신 예수님의 마음안에 머물기 위해 노력하라.

2) 욕망을 통제해서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저절로 맺혀진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육신의 잘못된 욕망을 제어한다.

3) 내면의 '바람' 을 경작하라.

[시편 27: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욕망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다윗은 언제나 내면의 갈망을 경작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갈망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경작이 결국 우리를 모든 욕망의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힘을 갖게 할 것이다.

4)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욕망을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존재이다.